

<2018년 7월 31일 화요일 새벽, 주 말씀>

* 새벽 4시 15분 생방송 시작

◎ 모두 기다렸습니까?

다 때가 돼야 나타나는 것입니다.

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.

왜 늦었냐고요?

피곤함이 극적으로 닥쳐서, 준비하느라 15분을 더 있었습니다.

◎ 어제 선생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랐습니다.

해 놓으니, 확실히 표가 납니다.

할 일이 있으면, 꿈꿨해서 그냥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.

<하다만 일>은 마치 머리를 조금 깎다 말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고,

옷을 입다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.

고로 참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.

피곤하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,

목소리 연습하고 준비하느라 늦었습니다.

1. <할 일>을 놓고 기어이 잊지 말고 해 버려야 된다.

2. 사람이 일을 할 때 <큰 일>을 하려면 힘들고 어려우니, “하겠

다.” 하면서도 잘 안 된다. <큰 일>은 ‘작은 시간’ 으로는 안 되고, ‘큰 시간’ 이 필요하니,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다.

3. <큰 일>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, 곧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시기를 “<작은 일>에 먼저 착수해라.” 하셨다.

4. <작은 일>에 먼저 불을 붙여 하면서, ‘큰 일’ 도 하는 것이다. 하나님도 항상 이같이 역사해 오셨다.

5. <하나님의 역사>를 보면, ‘작은 일’ 부터 시작해서 ‘큰 일’ 로 점진적으로 해 오셨다. -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다.

6. <큰 일>을 할 엄두가 안 나면, ‘작은 일’ 먼저 시작해라. 그러면 <뇌>에 ‘생각 시동’ 이 걸리고, ‘실천 시동’ 이 걸려서 큰 일도 하게 된다.

7. <월명동>도 처음에는 곡괭이, 삽을 가지고 흙을 파내서 인력거로 실어다 버렸다. 그러다 조금 큰 차를 사다가 흙을 실어다 버리고, 후에는 큰 포클레인을 가져다 ‘큰 일’ 을 하기 시작했다. 처음에 <돌을 쌓을 때>도 ‘작은 것’ 을 쌓으면서, “이왕이면 더 큰 것을 쌓자.” 하여 5m, 7m, 9m, 10m짜리 돌들을 세웠다. 이같이 월명동도 <작은 일>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‘큰 일’ 도 한 것이다.

8. 인생들도 어렸을 때는 그때에 해당되는 일을 하다가,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‘큰 일’ 을 하게 된다. 고로 그때마다 자기에게 오

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. 그래야 ‘앞에 오는 큰 일’을 할 수 있다.

9. 선생은 ‘돌을 쌓아서 세우는 일’을 해 본 적이 없었다. 하나님께서는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씩 야심작을 쌓게 하시면서 돌을 세우는 기술을 엄청나게 배우게 하셨다. 돌이 무너지면 또 쌓고, 무너지면 또 쌓으면서 하나님은 ‘연습’을 시키셨다. 하나님은 <큰 일>을 먼저 안 주시고 ‘작은 일’만 주시면서 행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‘제일 큰 돌들’을 주셨다. <작은 일>을 행하게 하시다가 ‘큰 일’을 하게 하시고, 결국 ‘큰 것’을 얻게 되었다.

10. <일을 할 때>는 항상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, 작은 일부터 ‘하(下) - 중(中) - 상(上)’으로 해 나가게 된다. 마치 어렸을 때는 10리, 20리씩 다니다가, 성장하면 100리, 1000리, 10000리 길을 다니는 것과 같다.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‘큰 일’이 닥치니, 그러므로 그때마다 <작은 일>에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. 하나님은 “<작은 일>에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, <큰 일>도 맡긴다.” 하셨다.

11. <큰 일>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는, ‘작은 일’을 완전히 해 버릇하지 않아서 그러하다.

<때에 대한 말씀>

12. <때>를 꼭 기다려야 된다.

13. 교만하지 말고, ‘때’ 를 기다려라.
14. 쉽게 비유하면, 다른 사람은 때가 되어 먹고 마시는데, 자기는 먹고 마시지 못하고 옆에 그냥 앉아있기도 한다. 저마다 ‘자기 때’ 가 있기 때문이다.
15. 가령 술에서 고구마, 감자, 옥수수가 익고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술뚜껑을 열고 먹으면 이가 빠진다. 이같이 ‘때’ 가 있다는 것이다.
16. 교만하지 말고, ‘자기 때’ 를 기다려라.
17. <교만>이란, ‘자기 생각만 하는 것, 자기중심 하는 것,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만족하게 사는 생각들’ 이다.
18. <자기 때>에 ‘자기 복’ 을 받는다.
19. 때가 되면, 너희도 높여준다. 고로 부지런히 공적을 세우고,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매일 기쁨으로 살아라.
20. 선생이 월명동에서 클 때,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쌀밥을 먹고, 수시로 고기를 사다 먹었었다. 그때 선생은 1년이 가도 고기 먹기가 힘들고, 쌀밥은 거의 못 먹었다. 산(山)기도를 다닐 때 하나님은 “때가 되면 너도 높여준다.” 하는 마음을 주셨지만, 그때는 그 주관권의 사고가 꼭 절어서 ‘나도 때가 되

면 쌀밥도 먹고, 고기도 먹고, 풍부하게 먹고 살 수 있겠지?’ 하고 그들같이 농사를 지어서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. 왜? 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. 만일 그때 내 생각처럼 됐다면 큰 일났을 것이다.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, 노방 전도를 다니며 세상을 보게 하시고, 신앙을 더 깊이 내다보게 하시면서 조금씩 생각을 돌리셨다. 그러고서 목사들을 보니, ‘아, 목사님들 같이 나도 잘 되겠구나. 교회를 맡아서 목사를 하겠구나.’ 하고 생각했다.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“네가 잘 된다.” 하시니, 내가 누구같이 돼야 이상적인 것을 이룰지 확실히 모르면서 ‘내가 부흥강사 같이 잘 될까?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맡아서 잘 될까? 경제 쪽으로 가면 사업을 해서 잘 될까?’ 하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다. 결국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되게 하지 않으시고, 자신의 욕으로 쓰시면서 ‘하나님의 최고 목적, 뜻’을 이루게 하셨다. “때가 되면 네가 잘 된다. 너를 높여 준다.”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.

21. <때>를 기다리면서 해야 된다.

22. 지금은 <복의 시대>다.

23. 지금은 <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간>인데, ‘연단의 기간, 혹은 힘든 기간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. 지금이 중한 때니, 잘해라. <들어가도 복, 나가도 복을 받는 시대>이니, 잘 생각하고 잘 해라.

24. 하나님이 어련히 너희 개인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느냐.

25. 과거에 기도함으로 인해 지금 이같이 된 것을 깨달아라.
26.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,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며 주와 일체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‘하나님이 주시는 복’을 다 누린다. 그러지 않고 정신이 흐리멍덩하면, ‘복’이 왔다 가도 모른다. 그러니 기도하여 총명하고, 지혜롭고, 명철하고, 명석하여라. 그래야 자기에게 주시는 ‘하나님의 축복’을 누리게 된다.
27.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라.
28. <하나님이 주신 것>을 잘 분별해야 된다.
29. 하나님과 일체 되어 ‘하나님의 신적 머리’로 행해야 이것이 환난인지, 연단인지, 축복인지, 고난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다.
30. 선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라. <하나님이 주신 것>을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, 명철과 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해 주어라.
31. <때>를 기다리되, 때만 기다리지 말고 ‘준비’를 해야 된다. <자기가 원하는 것>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.
32. <기성인들>은 ‘때’를 기다렸으나, 그 ‘때’가 왔어도 몰랐다.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주가 왔어도 못 맞았다.

33. <때>를 잘 깨닫고, 알고, 파악해라.